

노량진(오전)	6시
오전(1부)	7시
오전(2부)	10시
오후(3부)	2시
수요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서울 교회 02) 533-9191
장소: 강사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Jesus Centered News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1년 3월 21일 (제1089 호)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3부(오후)	2시
수요예배	저녁 8시 30분
금요일예배	저녁 8시

주일에배

인천 교회 032) 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동 우 컬럼

정신 차려라

“애들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라.” 이것은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우리 7남매에게 하신 말씀이다. 나는 이 말씀이 어머니의 유언이라 생각하고, 이를 묘비에 새겼다.

어머니가 소천하신 지 1주기를 맞아 기도원에 있는 어머니의 묘를 찾았다. 나는 그 자리에 함께한 기도원 식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무엇이든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해야 한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 내가 할 일과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 내가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이 보이는 거란다. 일을 할 때든, 가정을 이끌어 갈 때든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라.”

어머니가 남기신 말씀은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인지도 모른다. 요지경인 세상, 유혹이 너무 많은 세상, 시한폭탄 같은 세상, 눈 뜨고 있는데 코베어가는 세상에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처참히 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고, 베드로 사도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벧전 4:7)고 말했던 것 아닐까.

히브리서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예한 자가 되리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처음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는 말씀이다. 어떻게 하면 끝까지 잘 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가는 것이다. 이는 각성제를 먹어서 될 일이 아니라 목표, 곧 쫓대를 늘 주시해야 한다. 그래야 세상 어떤 것에도 현혹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된다.

외야에 있는 야구선수가 관중 소리에 신경을 쓰면 날아오는 공을 받지 못해 게임에 지고, 사슴을 쫓던 호랑이가 토끼 지나는 것에 한눈을 팔면 사슴은 놓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가 세상을 바라보면 갈 길을 잃어 천국에서 멀어진다. 그러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하자. 정신일도 하사불성(精神一到 何事不成)이다.

주님이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나’ 물으시면?

“물이 계속 흐르면 도랑이 나고 내가 생기고 강이 흐르고 바다를 이루는데, 그 바다에서 연어 떼가 올라오는 것처럼, 쉬지 않고 기도하면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

목사님은 지난 수요예배를 통해 당신의 신앙을 간증하시면서 간절함과 기다림의 미학을 설교하셨다.

“내 어머니가 돌아가신지 꼭 1년이 되어 기도원에 내려가 어머니 묘를 보며 지나온 삶을 회고해보았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던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절까지 지어놓고 우상을 섬기던 집안의 장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나서 나

소경 바디매오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분이 오시는 길목에서 기다렸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하고 외칠 때, 예수님은 그 외침에 돌아보시고 바디매오에게 다가가 말씀하셨습니다.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막 10:51) 보기를 원한다는 바디매오의 말에 예수님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하시며 그의 눈을 밝혀주셨습니다. 바디매오는 소경된 자신의 현실을 타파하고 싶었고, 그것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발견한 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시는 길목으로 데려가 달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에 보이는 않지만 말은 할 수 있기에 온

이 없이는 단에 설 수 없다는 멕시코 종교당국의 지침에 나는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지구를 반 바퀴 돌아 머나먼 나라에 많은 물질을 들여서 왔는데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국회부의장과 주지사를 들어 경비행기를 마련해주셨고 왕복 8시간의 비행 끝에 집회 허가를 받아 성공리에 캠페체 집회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나?’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분인데, 어찌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아들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



멕시코 캠페체 집회 광경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제사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하나님을 따랐다가 어머니와는 원수가 되고 집에서 내쫓겼지요. 신앙 때문에. 그러나 내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다. 내쫓긴 내 신세보다도 내 어머니, 내 7남매가 고통의 지옥에 갈 걸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원하는 게 뭐냐?’ 하실 때 나는 두말할 것도 없이 ‘내 어머니와 내 7남매 모두가 예수 믿길 원한다’고 간절히 내 소원을 눈물로 아뢰었습니다. 그 결과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명예권사직까지 받았고, 어머니 후손 중 4명의 목사와 2명의 전도사가 배출되었습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힘을 다하여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시끄럽다 하건 말건 그는 눈을 뜨고야 말겠다는 일념으로 자신이 소원하는 것을 간절히, 온 영혼을 모아 외친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보시지 않을 수 없도록 전심을 다해 외쳤습니다.

내가 사지가 마비되었을 때 나는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나를 살려주시면 내 생명도, 내 재산도 모두 하나님께 드리며 일생을 주를 위해 일하겠습니다’ 울부짖었습니다. 내 사지가 멀쩡해져서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메인스타디움 집회를 앞두고는 청계산을 오르내리며 6개월을 땅끝예수전도단 사무실 철 침대에서 침식하며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습니다. 단일 교회 집회 사상 초유의 집회로 기록되었습니다. 집회 허가증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진실로 원하는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왜요?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요?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두 마음을 품기 때문입니다. 요동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나를 닮아라, 나를 닮아라’ 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떠난 이후 단 한 번도 뒤로 물러간 적이 없습니다. 비록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답답하게 보일지라도, 더디게 보일지라도 오직 한 길, 예수만을 따라왔습니다. 내가 오늘에 이른 것은 오직 그분이 하라는 대로 믿고 순종하며 따라온 결과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진심으로 나를 닮기 원합니다(고전 4:16).

할렐루야!” **한은택 목사**

주일에배(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0% 대면예배)
1부: 오전 7시 2부: 오전 10시 3부: 오후 2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문의: 02. 533. 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막7:25~30)

옳은 길이라면 자존심을 버려라

‘성공과 성취를 택할 것인가, 한순간의 자존심을 택할 것인가?’

성공한 사람들이나 꿈이 있는 자는 자존심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존심을 버려 꿈을 이룬 뒤 자존감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인류구원’이라는 대업을 이루고자 자존심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최소한의 자존심마저 다 버리고 별거받긴 채로 가시면류관을 쓰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부활하사 하늘과 땅과 땅아래를 다스릴 권세를 얻으셨습니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히12:2). 만일 예수님이 자존심을 내세워 아버지께 열두 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달라고 했더라면 우리의 구원은 없었을 것입니다(막26:53).

자존심이란 스스로 자(自), 높을 존(尊), 마음 심(心)으로, 스스로 높아지려는 마음, 자기를 지키려는 마음을 말하는데, ‘자존심을 지키다’는 것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 참지 못하고 분노를 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그런 자를 ‘미련한 자’라고 말씀하셨고, 반대로 꿈을 이루기 위해 수욕을 참는 자, 곧 자존심을 버린 자는 ‘지혜롭다’ 하셨습니다(잠12:16).

자존심을 버리고 후일을 도모하라

그런 의미에서 마가복음 7장의 수로보니게 여인은 아주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녀에게는 귀신 들린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어떡하면 딸을 고칠 수 있을까 노심초사하던 차에 예수님의 소문이 들렸고, 그녀는 물어 물어 예수님을 찾아와 딸이 낫기를 간구했습니다. 소문대로라면 당연히 예수님이 ‘그래, 자식 때문에 그간 고생 많았다.’ 하시며 고쳐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정말 의외였습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막7:27). 졸지에 수로보니게 여인은 개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얼굴이 뜨거웠겠습니까? 정말 자존심이 뭉개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위대한 것은 바로 이 장면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 와중에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막7:28)라고 답한 것입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자존심 지키려고 여기 왔던가. 내 딸을 고치러 온 것 아닌가. 개가 되면 어쩌랴. 내 딸만 낫는다면...’ 그런 그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의 딸을 고쳐주셨

습니다. 만일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존심을 내세워 “아니, 예수님. 못 고치겠으면 못하겠다고 말하지, 개라니요? 내가 개로 보입니까? 내 딸 안 고치면 그만입니다.” 하고 돌아섰더라면 그녀와 딸의 인생은 어찌 되었을까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자기의 분깃을 가지고 집을 나가 허랑방탕하다 모두 탕진한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그나마 잘한 게 있는데, 그것은 자존심을 버리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나를 아들로 생각지 말고, 품꾼의 하나로 생각하십시오.”(눅15:19)라고 자존심을 버렸습니다.

완전히 내려놓고 말합니

다. 그러나 아버지 마음은 그저 돌아온 것이 고마워서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 아들이 ‘아, 자존심이 있지, 큰소리치고 나왔는데 죽어도 못 들어가.’ 했더라면 그는 계속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나 먹고 살았을 것이고, 나중에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하면서 극단적인 생각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자존심이 침병이 되면 안 됩니다. 침병(尖兵)이란 행군의 맨 앞에서 경계, 수색하는 임무를 맡은 병사를 말하는데, 무슨 일을 진행함에 있어 누가 내 인격을 건드린다고 자존심이 침병이 되면 일을 망치고, 사고를 치게 되어 있습니다. 다 된 밥에 코를 빠트리기는 격이 되고 맙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독일로부터 차관을 들여오기 위해 독일이 요청한 광부와 간호사들을 파견했습니다. 돌아해보면 정말 뼈아픈 역사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자존심을 버리고 독일 정부의 요청에 응하고 차관을 도입한 것입니다. 일단 살고 봐야 하니까요. 그리고 우리를 36년 동

안 강점했던 일본에게도 차관을 요청했습니다. 한 국가의 자존심, 대통령으로서의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도 자존심을 버리고 유학시절 쌓아둔 인맥들에게 하소연해서 이 나라의 기틀을 세우고자 애썼습니다. 한 나라를 세우는데, 기업을 세우는데, 가정을 세우고, 큰 꿈을 이루는데 뭘 말라빠진 자존심입니까? 목적을 이루고 봐야 할 것 아닙니까?

테레사 수녀가 빵집에 가서 빵을 좀 기부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빵집 주인은 적선은 고사하고 테



총회장 이초석 목사

레사 수녀의 얼굴에 침을 뱉

으며 “재수 없어, 얼른 꺼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테레사 수녀는 다시 “남은 빵이 있으면 좀 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같이 간 봉사자가 “수녀님, 수녀님은 자존심도 없으세요? 그냥 나가요.”라고 하자 테레사 수녀는 “나는 자존심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야. 아이들에게 먹일 빵을 구하러 온 거야.”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러가 자존심을 앞세웠다면 그 많은 고아들을 먹여 살렸을까요? 아닙니다. 세상 말로 더럽고 치사하고 아니 꼬아도 ‘내 아이들을 먹여 살리겠다.’는 목적과 꿈이 있었기에 다 참아낸 것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최고의 대학을 나와 결혼까지 잘해서 사모님 소리를 들던 어느 여인이 있었습니다. 정말 세상 부러울 것이 없고, 자존심 세기로 치면 으뜸인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 사업이 부도가 나고, 이로 인해 남편은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리자 슬퍼할 겨를도

없이 그녀는 생계를 책임져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며칠을 고민하다가 자본이 적게 드는 생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광주리에 생선을 담아 이고 다니며 생선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알곳은 운명의 장난이랍니까? 어느 날 골목을 지나가는데 대학 시절 라이벌이었던 친구가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도 온갖 명품을 다 걸치고요. 그녀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러나 생각했습니다. “내 상황에 자존심은 사치야. 애들 먹고 학교 보내야 돼.” 그래서 먼저 “친구야.” 하며 다가갔습니다. 친구는 처음에는 누구인지 몰라보다가 그녀를 알아보고는 놀라 그간 사연을 물었습니다. 사연을 다 들은 친구는 동기들을 수소문해서 이 여인을 도와 번듯한 가게를 차려 주었습니다. 살다 보면 자존심을 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버릴 때 버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자존심은 순간이나 꿈은 영원하다

나아만 장군이 자존심을 내려놓아 문둥병에서 해방되었고, 아브라함이 자존심을 버리고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 살아날 수 있었으며, 다윗이 왕의 체면을 내려놓고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께 아뢰릴 때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 자존심을 기도원에 있는 제 가묘에 다 묻었기에 오늘날 예수중심교단을 세우고, 세계 72개국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자존심은 절대 밥 먹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 아닌 나’와 싸워 이겨야 합니다. 내가 살고 봐야 할 것 아닙니까? 사람을 구하고 있습니까? 삼고초려(三顧草廬)에서 배우세요. 누가복음 18장에 재판관을 계속 찾아가 과부처럼 하면 됩니다. 배울 것이 있습니까? 아랫사람에게라도 자존심을 버리고 배우세요. 돈이 필요합니까? 누가복음 11장에 보리떡을 구하러 간 자처럼 자존심을 버리고 구하세요. 당신의 꿈이, 당신의 목적이 옳은 것이라면 자존심을 버려 그 길에 당도하십시오. 자존심을 버려 후일을 도모하십시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잠16:18). 할렐루야!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농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건강을 잃은 자의 괴로움

자원하는 마음

주의 일을 하는 것, 목자로서 돌봐야 할 양 떼가 있다는 것! 그간 누려왔던 당연한 것들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 값지고 가장 귀한 것임을 깨달았다.

이러한 교훈은 바쁘게만 살아왔던 필자에게 예고도 없이 불쑥 찾아왔다.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극심한 피로감과 무력감, 순식간에 13kg이나 쪼그라든 체중, 길을 걷다가 혹은 운전 중에도 껴게 되는 갑작스런 어지럼증과 두통, 그리고 소화 장애와 구토 증세들은 급기야 어찌어찌 겨우 버티고 있던 일상을 파괴했다. 내 의지와는 무관하게 정든 목회 현장을 떠나야 했던 것이다!

사실 건강 이상에 대한 경고는 예전부터 수차례 주어졌었다. 총회장님을 통해, 그리고 가족과 기도해주시는 여러분들을 통해... 그러나 그 경고의 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은 결과, 경고에 예견했던 원치 않은 결과를 온몸으로 직접 체험하게 되고야 말았다.

처음엔 ‘목회 31년째에 주어진 안식년이란 선물’이라 여기고 그저 감사하고자 했다. 이를 계기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기로 했다. 하지만 이것은 건강을 돌보지 않았던 지난날의 어리석음을 신앙의 언어로 포장한 거짓된 자기 위로일 뿐이었다. 건강을 잃은 자에게 더 이상 일상의 기쁨을 만끽할 자유는 주어지지 않았다. 양 떼를 잃은 목자의 심정은...

회복을 위한 철저한 몸부림이 시작되었

다. 그러나 의지를 벗어난 무기력한 몸은 잠시잠깐 틈이라도 보일라치면 상처받은 자존감을 사정없이 바닥으로 내동댕이쳤다. 시일이 지나도 회복이 더디자 이제는 조급증이 찾아오기도 했다. 하지만 일상으로 복귀하고자 하는 열망을 결코 꺾을 수는 없었다.

주께서 주신 귀한 목사의 사명을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다. 수시로 격려해주시는 총회장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싶지 않았다. 여기에 응원해주시는 성도님들의 눈물 어린 기도와 어떠한 나보다 더 불안하고 고통스러웠을 가족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헌신은 고통의 순간마다 무너져 내리려는 마음을 다잡게 해주었다. 그렇게 1년 2개월의 시간이 흐르고 있다.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을 회복하여 복귀를 고대하고 있다. 할렐루야!

개도 한 번 두들겨 맞은 구멍에는 다시 안 들어간다. 다시 이런 고통과 아픔을 겪지 않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마16:26)는 주님의 음성이 귓가에 선명하다.

건강이 있어야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내가 불이 붙어야 남도 불붙일 수 있는 것 아닌가. 일상을 빼앗긴 자의 괴로움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어느 순간 흐트러지려는 마음의 허리띠를 다시 졸라맨다.

신현명 목사

:: To Be Succeeded ::

간절함

코로나로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동안 아이들과 가장 많이 나눴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잠8:17)는 말씀이었다. 자칫 나도 모르게 마음이 흐트러져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었다. 부득이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골방에서 주님을 간절히 찾게 하시고, 나 자신도 모르게 쌓여있던 마음의 짐과 깨닫지 못했던 죄를 토설케 하시며, 영과 혼과 육을 치료하는 작업을 하셨다. 그때 알게 된 어느 북한 성도님의 간절한 신앙생활 또한 나의 내면과 신앙생활을 점검케 했다.

20대 젊은 시절부터 30년 가까이 예수님을 믿어온 그 성도님은 성경 한 권을 가지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품고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넘어왔다. 북한에서는 드러내놓고 마음껏 기도와 찬양을 할 수 없었기에, 30년 가까이 매일 다락에 올라가 기도하셨다는 그분은 기도한 자리가 움푹 팻 만큼 간절히 기도하셨고, 찬양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못 이겨 산으로 들로 돌아다니며 흥얼흥얼 마치 술 취

한 사람마냥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한다. 그렇게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을 감당하지 못해, 여러 필요 물품을 곁들여 이웃들에게 전하기도 했다는 그 성도님은 성경 한 권을 ‘귀한 보석’이라 지칭하며 발각될 경우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살아있는 순교자였다. 실상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그곳에서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하며 날마다 눈물 뿌리며 몸부림쳤을 그 성도님을 보며, 오늘날, 지금 나는 얼마나 간절히,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찾고 있는지 묻게 된다.

성경은 중심을 다해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난 기록이고, 지금도 또 앞으로도 그분은 변함없이 그 앞에 간절히 무릎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만나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시다.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모든 수고로움과 슬픔과 죄 짐을 내려놓고 간절히 기도와 간구를 아뢰를 때,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맑히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새롭고 강건케 하실 것을 믿는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충만하기를 진실로 원한다.

이국진 사모

총회장 목사님께서 ‘의사도 좋고, 판사도 좋고, 박사도 좋지만 사중에 제일 좋은 사는 봉사’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봉사는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자원하는 자, 적극적인 자를 기뻐하십니다.

저는 20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중고등부와 대예배 영상팀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봉사할 때 제 마음은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곧 내가 꼭 해야 하는 일이다.’라는 마음으로 임합니다. 또한 제가 하는 일이 비록 작은 일이지만, 이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이 더 큰 일도 맡기신다는 누가복음 16장 10절의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총회장 목사님께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

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라는 마태복음 24장 45절 말씀에 늘 ‘저요’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듣고, 저도 목사님처럼 당당히 그렇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자원하는 마음과 적극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언제나 본을 보여주시는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보고 느끼고 배우며 그런 목사님의 모습을 닮고 싶은 마음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 그리고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이 제 신앙에 흔들리지 않는 기반이 되기를 늘 기도합니다.

이은성
es2563@naver.com



:: 생명의 말씀 ::

행복

찬송가 434장 ‘나의 갈길 다가도록’을 비롯하여 수 천곡의 찬송가를 작시한 화니 그로스비 여사는 평생 소경으로 살았던 사람이다. 어느 성도가 그녀에게 “당신의 얼굴은 늘 밝고 감사의 빛으로 차있는데 당신의 처지를 보면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무엇이 그렇게 감사합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감사의 조건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자신이 비록 육체적으로 앞을 못 보는 소경이지만 불평이나 원망으로 삶을 비관하지 않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쁘게 살아가는 삶 자체를 감사하고 있다. 이게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이다. 미국의 필 목사가 기차여행을 하게 됐다. 앞좌석에 중년 부부가 앉았는데, 부인이 뭔가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다. 이때 남편이 필 목사에게 인사를 한다. “저는 변호사이며 제 아내는 제조업자입니다.” 필 목사는 “그러십니까? 현대 어떤 제조업에 종사하시는지요?” 하자 남편 왈, “불평

을 만드는 제조업입니다.”라고 했다. 나는 매일 불평을 짚어내는 제조업자인가? 아니면 감사를 짚어내는 제조업자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 사건은 감사하고 감사할 일이다. 매일 아침 만나를 거두어 먹고 반석에서 생수를 마시며,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들은 불평 제조업자의 삶을 살다가 결국 광야에 엎드려 죽었다. 이것이 우리의 거울이다. 하나님은 “불평은 불행해지는 연습이요, 감사는 행복해지는 연습이다.”라고 하고, 사탄은 “항상 낙심하라, 쉬지 말고 원망하라, 범사에 불평하라.”고 속삭인다. 감사는 하나님 뜻이고, 불평은 사탄의 뜻이다.

‘이대론 안 된다. 일어나 빛을 발하자!’는 슬로건을 어떻게 이행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 인생 공장이 매 순간 불평이 아닌 감사를 짚어내 빛을 발하는 것이다. 그리하면 행복한 인생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고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임택함 목사

:: 간증 ::

:: 신앙에세이 ::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당시로는 늦은 나이인 35세에 천주교에서 결혼식인 혼배성사를 했습니다. 외할머니로 시작되어 어머니와 나, 그리고 아들에 이르기까지 4대째 내려오는 천주교 집안이었습니다. 생활력이 강한 아내가 들어오면서 살림이 점차 피기 시작했고, 안양에 에텐파크라는 그럴듯한 숙박업소를 운영하면서 호황을 누렸으며, 그 시기에 친구의 권유로 강남 수서지역에 대규모 아파트가 입주하면서 동아일보 수서지국을 개설했습니다. 사업이 잘 되니 겉으로 보기에는 에텐 같았으나 가정은 에텐이 되지 못하니 문제가 생겼고 아내는 힘겨워했습니다. 그때 복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집회가 있으니 꼭 가보라며 택시비까지 주는 모 권사님의 전도를 받고 아내는 갑급한 심정으로 집회에 갔는데, 그날에 쏟아지는 눈물을 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성령체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후 아내는 목사님의 말씀 테이프를 매일 반복해서 보고 듣고 하더니, 마음을 정했는지 성당에서 옮겨 교회와 기도처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명절 때가 되면 며느리들이 함께 모여서 음식을 만드는데, 아내는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며 뜻을 밝히고 동참하지 않게 되자 유별난, 미운털이 박힌 며느리와 동서가 됐지만, 명절이 지난 후엔 용돈과 함께 꼭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내의 별난 신앙 덕분에 다툼이 잦았고, 아내는 다른 것은 다 들어줄 수 있지만 예배 가는 것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는 말

에 제가 꺼내든 카드가 '이혼하자.'였는데, 아내는 진짜로 아예 짐을 싸서 나가 버렸습니다. 아내가 무작정 집을 나가 찾아간 곳은 장성기도원이었는데, 이혼을 당한다는 생각은 하나도 들지 않았고, 자궁을 막고 있는 큰 혹으로 불임 진단을 두 명의 의사로부터 받은 적이 있었는데,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꿈속에서 목사님의 안수를 받고 혹이 터지는 놀라운 일이 생각나더랍니다. '꿈속에서 안수를 받고 혹이 터졌다면 목사님을 만나서 직접 안수를 받으면 원하는 딸을 가질 수 있다.'는 믿음을 품고 3일 금식하면서 통곡하며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한 후에 목사님께 소원을 말씀드리고 안수를 받았답니다. 저는 돌아온 아내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교회도 다닐 수 있도록 허락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내의 기도를 들으시고 딸이 없는 집안에 7년 만에 딸을 주셨고, 그때부터 아내는 집안으로부터 인정받게 되고, 그 이후에 믿음이 하나가 되니까 보너스로 2명의 늦둥이 딸을 더 주셔서, 1남 3녀가 됐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주께서는 새 일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동안 잘나가던 숙박업소가 갑자기 적자가 되면서 정리하고, 계속 투자만 했던 신문지국은 되레 흑자로 돌아가면서 안양에서 강남 수서지역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아내는 올림픽공원으로 예배를 드리러 집을 나서는데, 손에는 아들을 붙잡고 등에는 딸을 업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가 되지 못하고 저는 계속 성당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올림픽공원에서 KBS88체육관으로 이전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추운 겨울인데도 빠지지 않고 애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러 가니 아버지로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할 수 없

이 차로 데려다주고 예배가 끝날 때까지 차 속에서 기다리기를 몇 번 했습니다. 그러다 '차라리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자.' 하여 예배에 참석하게 되면서 말씀을 듣다 보니 믿음이 생기고 교구의 구역장으로, 조장으로, 장로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들어가니 '하나님을 어떡하면 더 잘 알고 섬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목사가 아니라 평신도로서 신학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생각대로 어린 딸들의 교육을 위해 영어를 사용하는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피지로 사업 이민을 하였으나 손대는 일마다 되지 않아 3년 6개월 만에 가진 것을 다 털어먹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 신학을 했으면 좋겠다는 나의 옛날 생각을 기억나게 하였고, 길을 열어 주셔서 호주 신학교에 입학 수료하게 하시고, 예수중심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호주 시드니 교회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주의 종으로 한눈팔지 말고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놀라운 표적을 주셨습니다. 눈의 시력이 마이너스로 중학교 때부터 60대 초반까지 50여 년 동안 반드시 안경을 착용해야만 볼 수 있었는데, 눈 수술도 하지 않고 콘택트렌즈도 끼지 않고 맨눈으로 잘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돌아해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섭리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저의 남은 생을 맡기고 의지하며 그분을 따라가려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찌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창28:15).

시드니예수중심교회 문정훈 목사

네게 무슨 상관이나?

어렸을 적, 천국과 지옥, 구원에 대해 알게 된 후 염려 섞인 궁금증이 생겼다. '세종대왕, 이순신, 유관순과 같은 위인들은 예수님을 몰랐을 텐데, 지옥에 갔으면 어떻게 하지? 또 불행한 사고나 병으로 어릴 때 죽은 영혼들은 천국에 갈까, 지옥에 갈까? 어린아이여서 하나님에 대한 개념도 없을 때인데, 혹시 그렇게 지옥에 간다면 너무 억울한 것 아닌가?' 다행히 천국에 다녀왔다는 어느 간증집을 보니 그런 어린아이들은 비록 집 없이 넓은 들판이기는 하나 천국에 산다는 애기도 있어 마음이 좀 놓였다. 그러면서 '저런 사람은 지옥에 가야 하지 않나?'라는 어린 생각들을 했었다. 사실 그것은 부질없는 고민이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는 재판장만이 알 수 있고, 재판장은 법대로 행하는 것이다.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 수록되어 있다. "다른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행4:12). 그리고 죄인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간다고 했다.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 받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확실히 기록하고 있다.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고, 내가 천국에 가는지는 자기 자신이 안다. 성경에 근거한 자신의 믿음, 바로 구원의 확신으로 말이다. 자기 삶의 끝에 대해 들은 베드로가 요한은 어떻게 궁금하여 예수님께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남 상관 말고 네 믿음이냐 지켜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나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요21:21~22).

박찬영 집사

우리 아이 짜증이 심한 것도 병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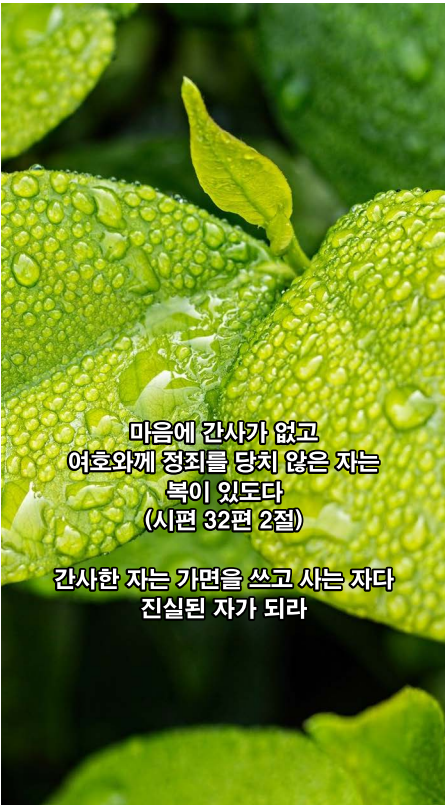
:: 나도 건강할 수 있다 ::

'동의보감'의 간(肝)문에 보며 간(肝)의 기능이 부족하거나 과하게 항진되었을 때 쉽게 노한다고 하였다. 현대 과학으로 조금씩 밝혀가는 중이지만, 최근 심장이식을 받은 한 환자가 기증자의 기억을 떠올리고 성격이 바뀌었다고 하니, 우리 몸의 내장과 정신 사이에는 분명 긴밀한 관계가 있는 듯하다. 인간의 발달과정 중 6~8세와 사춘기 시절은 부모와 마찰이 많은 시기이다. 또한 갱년기 여성들은 주변 사람과의 마찰이 심해질 수 있는 시기이다. 이처럼 신체의 변화에 따라 개인의 성격 및 성향도 바뀔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특정 시기가 아니라 늘 짜증이 심하다면 본인은 물론 주변 사람들 역시 무척 피곤하고 가정의 평안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이 문제이다. 한방에서는 짜증을 두 가지 패턴으로 구분한다. 첫 번째 한(寒)증, 두 번째는 열

(熱)증이다. 한증은 눈 밑이 거무스름하고 눈썹 사이에 푸른 정맥이 튀어나와 있으며, 추위를 잘 타고 짜증을 잘 부린다. 열증은 머리 정수리에 불덩이를 얹은 듯 화끈거리고 눈이 충혈되거나 열이 치솟아 상기되면서 진땀이 솟구치고 불안해하며 짜증을 부린다. 한증일 때는 까치콩을 볶아 가루 내어 4g씩 대추차로 복용한다. 까치콩은 신경을 안정시키는 영양식품이고, 대추도 훌륭한 안정제 역할을 한다. 열증일 때는 골풀 12g을 끓여 하루 동안 조금씩 나누어 먹는다. 골풀은 '등심'이라고도 하는 안정제이면서 열을 떨어뜨리고 이뇨 작용을 한다. 또는 말린 멸치를 우려낸 물과 된장콩으로 국을 끓여 먹어도 좋다. 말린 멸치는 신경을 안정시키고 혈액의 산성화를 조절해 짜증을 가라앉힌다. 된장콩은 화기를 내리는 효과가 있다. 다른 방법으로

는 "동의보감" 처방대로 감초 3g, 부소맥 13g, 대추 4g을 함께 끓여 마시면 좋다. 이것은 짜증을 풀고 열나면서 가슴 답답한 번열증, 수면 중에 땀이 나는 도한증, 히스테리, 우울증, 정신 피로에도 좋다. 불특정 다수에게 짜증을 부리는 경우도 있지만, 혹시 우리 아이가 주 양육자인 엄마나 아빠에게 특별히 짜증을 많이 낸다면? 무엇보다도 아동과 양육자 사이의 성향 차이 때문일 수 있으니 부모 입장에서 아이를 이해하기 어렵고, 아이 역시 부모를 이해하기 어려워져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경우가 있다.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 양육한다 하여도 받아들이는 입장이 다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부모의 원칙만 고수하기보다는 발달단계에 맞게 아이를 지혜롭게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는 길일 것이다.

Dr. 설재현 집사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2편 2절)

간사한 자는 가면을 쓰고 사는 자다
진실된 자가 되라